

# 2023년 3월 시청자위원회 운영실적

방송국명 : 대전MBC

## 1. 회의개최

연번	일시	장소	참석인원				회의형태		
			시청자 위원 (참석인원/ 총인원)	방송국		총 인원 (명)	대면	온라인	서면
				경영진 (명)	경영진 외(명)				
1	'23.3.28.	대전MBC 4층 회의실 (대면회의)	7/10	5	2	14	○		

### ○ 회의 참석자 명단

#### ① 시청자위원 명단

최병욱 위원, 이희중 위원, 류용환 위원, 임재근 위원,  
정훈진 위원, 손기배 위원, 김정동 위원

#### ② 방송국 관계자 명단

- 경영진 : 김환균 사장, 서주석 전략기획실장, 최기웅 보도국장  
이상욱 편성국장, 정수진 인프라국장
- 경영진 외 : 이은표 간사, 이재근 실무담당

## 2. 심의결과 및 조치현황

### 가. 의견제시 또는 시정요구

방송 편성	방송프로그램					자체 심의규정	합계
	보도	교양	연예오락 (스포츠)	기타	소계		
-	3	5	-	2	10	-	10

### 나. 사업자 반영

구분	수용	의견참고	반론	합계
건수	10	-	-	10

## 다. 전월(2월) 의견제시(시정요구)에 대한 조치내용

구분	의견제시(시정요구)내용	조치내용	제시월
보도	<한파 쉼터 보도> 경로당을 한파쉼터로 이용하는 문제로 담당공무원과 거주민들의 입장차이가 있는데 더 나아가 이것이 행정편의적인 정책이 아닌지를 보도하면 좋을 듯.	경로당을 이용한 쉼터 정책들은 실제 행정편의주의적인 측면이 있을 수 있어 좋은 지적에 감사. 솔루션 저널리즘의 가치를 걸고 취재하겠음. <23. 3월 조치>	'22.2월
교양	<시시각각 자막> 패널들의 발언이 전달력이 떨어져 이를 보완하기 위한 자막이나 그래픽 작업 필요해 보여.	시청자들의 이해를 돕기 위해 관련된 그래픽이나 영상을 추가해 방송될 수 있도록 반영하겠음 <23. 3월 조치>	'22.2월
교양	<대덕연구단지 50주년 특집> 올해 대덕연구단지 50주년 특집으로 시시각각 등에서 다양한 시각으로 주제를 다뤄주었으면.	대덕특구 관련해서는 몇 가지 프로젝트를 계획 중에 있는데 구체적인 윤곽이 나오면 다음 달에 소개할 예정 <23. 3월 조치>	'22.2월
교양	<고향사랑기부제> <오늘M>에서 고향사랑기부제 방송 내용 유익했음. 방송을 통해 우리 지역 시민들한테도 홍보가 잘 될 수 있게 했으면.	지역밀착 프로그램으로 지속적으로 홍보할 것. 지역에 나가서 농산물을 소개하고 고향사랑기부제를 디테일하게 소개하는 방송 계획중에 있음 <23. 3월 조치>	'22.2월
기타	<시청자 위원회 구성> 시청자위원을 새로 구성하게 되는데 세대 다양성 측면에서 청년 세대 등 젊은 연령층도 적극적으로 선임하면 어떨지?	지금까지 연영을 이유로 배제한 적은 없고 2018년도에도 20대 여성 위원이 활동적 있는데 이번에도 적극적으로 청년 세대를 발굴하겠음 <23. 3월 조치>	'22.2월
기타	<시사프로그램 부활> 지역의 시사프로그램이 필요한데 지역에 KBS만 있는 실정임. 대전MBC도 부활을 검토하면 어떨지?	지난 7-8년간 제작하면서 호응이 좋았는데 인력여건이 좋지 않아 중지하게 돼. 3월에 신입사원이 충원된 후 인력상황을 보고 부활을 검토하겠음 <23. 3월 조치>	'22.2월
게시판 (기타)	<지진 시 대피요령 영상> 지진발생시 행동요령에 빌라 밀로로 대피하는 영상이 있는데 지진발생시 건물을 피하고 넓은 공터로 대피하고 해야 하는 것 아닌지?	'지진 시 행동요령 영상'을 검토한 결과 일부 내용이 부적절하다고 판단되어 해당 영상은 송출을 중지하고 다른 피해예방 영상으로 대체 조치함 <23. 2월 조치>	'22.2월

### 라. 시청자 권익보호와 침해구제

요청내용	조치내용	조치일자	비고
	해당사항 없음		

마. 시청자평가원 선임 현황

(임기: 2000.0 ~ 2000.0)

성명	생년월일	전·현직	변동사유	비고 (임기)
		해당사항 없음		

3. 시청자위원회 운영 효율성

평가기준	해당여부
2023년 3월에 집계된 시청자 불만사항 회의 전 고지	○
시청자위원 및 임원진이 함께 공유하는 온라인 대화방 개설	○

4. 기타사항

가. 시청자위원회 회의록 공개 사항

- 대전MBC 홈페이지 공개

나. 시청자위원 명단

(임기 : 위원별 상이)

구분	성명	전·현직	추천단체	추천부문	비고 (임기)*
위원장	최병욱	한밭대학교 총장	대덕연구개발 특구협의회	과학기술단체	남/1961 21.05.01~23.04.30
부위원장	이희중	대전보건대학교 방송컨텐츠과 교수	대전동구 사회복지협의회	소외계층대변	남/1964 21.05.01~23.04.30
위원	임재근	평화통일교육문화센터 소장	민주노총 대전본부	노동단체	남/1978 21.05.01~23.04.30
위원	정훈진	변호사	대전지방변호사회	변호사단체	남/1967 21.05.01~23.04.30
위원	황혜진	대전공공미술원 대표	대전동구문화원	문화단체	여/1977 21.07.01~23.04.30
위원	류용환	한국소비자시민모임 대전지부 대표	한국소비자모임	소비자단체	남/1960 21.11.01~23.04.30
위원	손기배	굿네이버스 대전세종지부	굿네이버스 충청본부	인권단체	남/1983 22.03.01~23.04.30
위원	마정미	한남대학교 정치언론학과 교수	충청언론학회	언론단체	여/1966 22.05.01~23.04.30
위원	김정동	대전참여자치시민연대 사무처장	대전참여자치 시민연대	소외계층대변	남/1977 22.05.01~23.04.30
위원	박미숙	(주)비앤비컴퍼니 대표	한국여성경제인협회 대전지회	경제단체	여/1964 22.05.01~23.04.30

**의견제시 또는 시정요구 내용에 대한 답변**

구분	의견제시 또는 시정요구 내용	답변내용	비고		
			수용	참고	반론
보도	<화재 보도> 현대아울렛과 한국타이어 대형 화재가 대전 지역에서 발생했는데 안전 화재예방과 불감층에 대한 후속보도를 해주었으면	회의록 첨부	○		
보도	<가뭇피해 보도> 광주전남 지역이 봄 가뭄이 심각한 상황인데, 대전충남도 마찬가지라고 생각. 이와 관련해 물절약 캠페인 등을 전개하면 어떨지?	회의록 첨부	○		
보도	<국가 산단 보도> 산단을 유치했지만 다른 지역에 비해 대전이 10배 가까이 예산이 투입되어야 한다는 문제점 등 후속보도를 이어나갔으면	회의록 첨부	○		
교양	<다큐멘터리 장날 - 차별화> - 장터의 모습이 대동소이한데 개별 시장마다 장터 역사와 차별화는 어떻게 할지? - 유튜브 조회수 높인데 왜 높은지 분석한 자료가 있는지?	회의록 첨부	○		
교양	<다큐멘터리 장날 - 진행방식> - VJ가 직접 진행을 하는데 리포터 등 프리젠티어를 쓰면 어떨지? - 지역 소멸의 문제 등 지역적인 문제 또는 지역별 특성까지 터치해주면 좋을 듯	회의록 첨부	○		
교양	<다큐M> 현재 꽃이 피어있는데 겨울 영상이 방송되는 등 시제가 맞지 않는데 시제와 무관한 프로그램을 교환하면 어떨지?	회의록 첨부	○		
교양	<시시각각-민주의거 토론 패널문제> 87년 6월 민주항쟁을 대변하는 대표적인 인물로 전직 구청장인 정치인이 등장한 것은 민주화 운동 인사에 대한 오해 소지 있어 보여 아쉬워	회의록 첨부	○		
교양	<시시각각-챗 GPT토론 편집문제> - 녹화방송임에도 불구하고 '챗 GPT' 관련 토론시 패널이 답변을 못해 시간이 길어져 부자연스러웠는데 지루하지 않게 사후 편집을 해주길 - 어려운 기술적인 용어 사용시 자막이 없어서 이해하기 어려운데 편집시 자막으로 보충설명 필요해	회의록 첨부	○		
기타	<소년소녀합창단> 비영리인지 계속 운영할 것인지 궁금하고 지역에서 서로 상생할 수 있는 합창단으로 만들어 주었으면	회의록 첨부	○		
기타 (게시판)	<뉴스투데이 배경음악> 뉴스투데이 대전세종충남 방송할 때 오프닝 타이틀 배경음악이 본사와 다른데 똑같은 음악으로 바뀌주면 어떨지?	회의록 첨부	○		

## 2023년 3월 대전MBC 시청자위원회 회의록

□ 일시 : 2023년 3월 28일(화) 오후 4시

□ 장소 : 대전MBC 4층 대회의실

□ 시청자위원회 참석자 : (총 7명)

최병욱 위원, 이희중 위원, 류용환 위원, 임재근 위원,  
정훈진 위원, 손기배 위원, 김정동 위원

□ 회사 참석자 : (총 7명)

김환균 사장, 서주석 전략기획실장, 최기웅 보도국장, 이상욱 편성국장,  
정수진 인프라국장, 이은표 간사, 이재근 실무담당

□ 회의록 전문

이은표 간사

지금부터 3월 시청자 위원회를 개최하겠습니다. 오늘 회의는 총 10분 중에 7분이 참석하셨습니다. 회의에 앞서 3월 대전MBC 홈페이지 시청자 게시판에 올라온 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3월 시청자의견 게시판에는 총 6건의 의견이 올라왔는데요. 홈페이지 뉴스 다시보기 오프닝 음악 음량 불만 1건, 작은학교 취재요청 1건, 라디오 교통정보 및 프로그램 제안 각 1건, 뉴스투데이 배경음악 변경 요청 1건, 줄넘기 국가대표 선수 방송 요청 1건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청자위원 자료 검토...)

지금부터 3월 시청자 위원회 정기를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김환균 사장의 인사 말씀이 있겠습니다.

김환균 사장

여름이 온 것처럼 덥다가 갑자기 추워지고 기온 차가 심한 것 같습니다. 드물기는 하지만 여전히 코로나에 감염된 사람이 나오고 있는데 코로나에 더욱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대전MBC는 지난주에 정기 주총을 마쳤고 본사는 새 사장 선임과 관련해서 여러 가지 위기 국면이 있고 또 방송문화진흥회에 대한 감사원 감사가 진행 중에 있어서 어수선하고 걱정들이 많습니다.

시청자들을 위해서 좋은 콘텐츠를 제작하고 지역 소식을 올바로 전하는 것이 대전MBC가 해야 할 일인데 호흡을 가다듬고 주어진 책무를 다 하려고 애쓰고 있습니다. 오늘도 좋은 말씀 기대하겠습니다.

이은표 간사

다음은 최병욱 위원장님께서 인사 말씀을 해 주시고 회의를 진행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최병욱 위원장

저희 임기도 한 달 남았네요. 두 번 남은 회의에 빠지지 않고 참석할 수 있도록 노력 하겠습니다. 코로나는 엔데믹이 되는 것 같습니다. 대한민국을 둘러싼 변화들이 진짜로 많은데요. 황사도 늘어나지만 마음만은 밝게 희망을 갖고 생활을 했으면 합니다. 대전MBC도 어려운 가운데에서도 희망찬 뉴스를 전하는 방송이 됐으면 좋겠다는 마음을 전하면서 3월 시청자 위원회를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이희중 위원님 말씀해주세요.

이희중 위원

오늘 아무래도 신설 프로그램 <장날>에 대해서 얘기가 많이 나올 듯 싶은데요. 장날이 장날이 될 듯 싶어요. 3월부터 시작해서 충남 지역의 여러 장터를 돌아다니면서 사람들을 만나는 휴먼 다큐인데 참 좋았다 라는 생각은 들었어요. 아쉬운 점은 비판적으로 말씀드리면 두 가지만 드릴게요

첫 번째는 내레이션이 성우 김영옥 할머니 같은데 익숙해서 좋기도 하지만 굳이 지역 방송에서 서울에 있는 성우를 써야 되나 라는 생각은 개인적으로 들었어요. 김영옥 씨를 쓰다 보니 너무 서울 프로그램처럼 비춰져서 제 입장에서는 아쉬웠고요

두 번째는 인터뷰 방법에 있어서 제작 방식이기도 한데 VJ들이 진행을 직접 하다 보니까 얼굴은 안 나오고 중간중간에 목소리만 나오고 질문을 보태더라고요. 물론 이런 방식도 좋은데 이런 형식 프로그램이 요즘 많잖아요. 이만기의 <동네 한바퀴>도 있고 종편 <섬마을 할머니>도 있는데 리포터를 써보는 것도 오히려 좋지 않았나... 목소리만 나오고 숨어서 얘기하는 것 같아서 이상했어요. 이걸 보완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보는 것도 좋을 듯 싶습니다.

<다큐M>은 여러 계열사들이 교환식으로 하는데 겨울그림이 꽃피었을 때 나온다면가 하는 시제가 맞지 않는 느낌이 들어서 가능하면 시제가 특별히 부여되지 않는 걸 교환해 보는 게 어떨까 라는 생각이 들었고요.

뉴스를 봤는데 제일 큰 뉴스가 한국타이어 화재였죠. 안타깝게도 작년 현대아울렛과 한국타이어 두 개가 오명을 쓰게 됐어요. 대전 충남지역이 큰 불의 발화점처럼 되어버렸는데 그 뒤에 초등학교 운동장에 분진이 날려 변호사 모임에서 상담해 주는 후속보도도 좋았는데 워낙 큰 사건이다 보니까 조금 더 관심을 지속적으로 가져가면 어떨까... 또 다른 불이 나지 말라는 법은 없잖아요. 요즘 산불도 많이 나기 때문에 안전 불감증에 대해서 지속적인 관심을 가져주면 좋겠다 라는 생각이 들었고요.

마지막으로 광주 전남은 지금 봄 가뭄이 심각한 위기 단계까지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 큰 주암댐이나 동복댐 저수율이 19%, 14% 얘기까지가 나오는데 제가 우연히 용담댐을 가봤는데 안천 쪽은요 예전에 살던 마을 흔적이 다 드러나 버렸어요. 물론 대청댐이 있긴 하지만 이 동네도 그렇고 방심하기에는 이르다는 생각이 들고요. 6월쯤 장마기가 시작되면 그때까지는 버텨야 되거든요. 보령댐 같은 경우는 금강 물줄기를 끌어가지 않으면 금방 바닥나버리잖아요. 그래서 경각심을 높이는 물절약 캠페인을 하면 어떨까 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이상입니다.

최병욱 위원장

네 감사합니다. 그 다음에 정훈진 위원님 말씀해주세요

정훈진 위원

저는 뉴스를 중심으로 봤습니다. 우선 보도 내용에서 한국타이어 화재 사건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대전에는 신흥 종교가 많이 있는 것 같아요. 뉴스를 보니까 위험성도 있지만 용어의 선택이나 보도를 잘 해줘서 잘 봤습니다.

기자들이 일선에서 그런 위험한 상황에서도 재난 보도를 열심히 하는 걸 보니까 칭찬해 주는 기회가 있었으면 좋겠다 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기사나 보도 내용에서는 제가 드릴 말씀은 없습니다.

<장날>은 3개 중에서 유구장하고 흥성 장편을 봤습니다. 제가 전에 다른 변호사님하고 둘이 계획을 짜서 주말마다 버스 타고 5일장을 돌아다니면서 막걸리도 한 잔 먹으면서 예산 장터에 갔었던 기억이 납니다. 이번에 방송을 보니까 장에 있는 모든 걸 볼 수 있게 했더라고요. 다른 방송에서 하는 프로그램 보면 리포트가 몇 군데만 찍어서 보여줘서 전체적인 장의 모습은 볼 수 없었는데 그런 면에서 흥미를 많이 끌었고 흥성장은 저렇고 유구장은 저렇구나 느낄 수 있게 지루하지 않았습니다.

차별성 있게 지역적인 문제점... 노인들밖에 없으니까 지역 소멸의 문제점... 아기를 안고 나왔던 한 분이 있었는데 그걸 보면서 지역적인 인구 감소가 그 장에서 여실히 나타나거든요. 그런 것도 조금 터치해 주면 좋지 않았을까 라는 생각 들었습니다. 어쨌든 기획이 잘 돼서 앞으로 계속 볼 것 같아요.

그리고 홈페이지에 예전에 창사 특집으로 한 것 같은데 연구단지 관련해서 박정희 대통령이 처음 시작해서 외국 사례도 비교하고 또 현재의 문제점과 나갈 부분까지 짚어줬는데 수준 있는 프로그램이었습니다. 연구단지가 어떻게 설립되고 어떤 문제점이 있고 어떻게 나가야 되는지에 대해서 가장 잘 짚어준 것 같습니다.

그런 문제를 얘기할 때도 지역적인 문제가 내포돼 있거든요. 연구단지에 20개 정도의 연구소가 있다고 하던데 연구 지원이 상당히 저조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약간 언급은 하던데 지역적인 문제를 같이 고려했으면 더 좋겠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어쨌든 굉장히 훌륭한 작품이었던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최병욱 위원장

네 좋은 얘기 감사합니다. 이어서 손기배 위원님 말씀해 주세요.

손기배 위원

저도 <장날>에 대해서 말씀드리려고 하는데요. 장날의 모습을 보는 것만으로 신선하고 좋았긴 했는데 방송 분량이 충분히 나올 수 있을까에 대한 의문이 있었거든요. 그런데 의외로 장터에서 볼 수 있는 다양한 모습들이 나온 것 같아서 굉장히 좋았습니다.

배우 김영옥 씨가 내레이션을 맡았는데 익숙한 목소리다 보니까 대중적으로 친근하게 다가갈 수 있어서 괜찮았습니다. 다양한 상품도 소개해 주고 시장 상인들이 가지고 있는 다양한 사연들과 일상들을 억지스럽지 않게 자연스럽게 표출한 연출 부분들이 좋아 보였어요. 인터뷰 내용도 전반적으로 사람 냄새가 나는 그런 프로그램이었습니다.

장날의 모습이 사실 조금씩은 다른 점이 있겠지만 전반적으로 보면 대동소이한 모습들을 보여줄 것 같은데요. 그래서 앞으로 몇 회 차 방송으로 계획하고 계신 건지 잘 모르겠지만 앞으로 이 프로그램이 지루하지 않게 각 장터의 색깔들을 방송에서 뽑아낼 수 있을지 조금 궁금해졌고요. 앞으로 기대를 갖고 열심히 시청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최병욱 위원장

감사합니다. 장날에 대해서 깊이 있게 말씀해 주셨고요. 이어서 김정동 위원님 말씀해주세요

김정동 위원

비슷한 얘기인데요. <장날>의 구성 자체에 한계가 있다 보니까 차이점을 어떻게 찾을 건가... 실제 장이라는 게 지역의 특성을 살리기도 하지만 프로그램에서도 나오는 것처럼 보부상들이 돌아가면서 했던 그 역사들... 지금도 현지에서 상인들이 모이는 게 아니라 인근 사람들이 모이는데 어떤 특성을 가지는지 차이점들을 잘 살리면 지금도 좋은 프로그램이지만 지역이 어떻게 같이 돌아가는지에 대해서 많이 볼 수 있는 프로그램으로 되지 않을까 싶고요.

<오늘M>같은 경우에는 실제 생활 정보에 대한 내용들도 있었지만 매주 수요일은 별도의 시사 프로그램이 없는 상황에서 지역의 주요한 시사 이슈도 놓치지 않는 의미가 있었고요.

뉴스 관련해서는 지속적으로 현대아울렛 사건 이후에 연결되는 문제들, 특히 희생자들의 지하

휴게실 문제에 대한 것도 있었는데 이번에 보도됐던 공무원의 휴게실이 지하에 있는 상황들을 실제 점검도 하고 이게 지상으로 올라올 수 있도록 공공시설뿐만 아니라 민간으로까지 확대될 수 있는 방안까지 지적한 부분은 의미가 있었다고 보고요.

그리고 백제문화제를 하면서 공주보의 물 체험 관련해서 작년에 논란이 많았었는데 실제 5개월 지난 지금 상황이 어떤지 후속 보도로 체크까지 해서 실제 문제점들이 나타난 부분들을 준비할 수 있게 했다고 보고요.

국가 산단 관련해서는 대전이 선정이 되고 후속보도들이 나가고 있는데 실제 다른 정부 사업들도 그렇지만 공모사업을 했을 때 5대5 매칭 등 문제가 되는 부분들이 있었는데 그 동안 늘 정부예산만 가져온 식으로 얘기하지만 실제 자치단체 예산도 같이 들어간다는 인식이 안됐었습니다. 산단 같은 경우에는 다른 지역에 비해 대전이 10배 가까이 더 부담해야 되는 문제점에 대해 지적하고 또 계획도 계속 바뀌고 있는 상황이라 이번에 단독 보도도 얘기가 있었지만 이후에도 후속 보도나 방향들에 대해서 같이 취재를 해도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

#### 최병욱 위원장

국가산단 문제와 현대아울렛 화재 문제까지 짚어주셨습니다. 이어서 임재근 위원님 말씀해주세요.

#### 임재근 위원

다큐멘터리를 자주 보는 편인데 <장날>이 시청자 위원회 카톡방에도 올라왔지만 사실은 그날 안 봤습니다. 개인적으로 당기지는 않았거든요. 제가 시골 출신이다 보니까 장날에 대한 향수를 느낄 만큼 색다른 건 아니었거든요. 그래도 시청자위원회 준비를 하면서 유튜브에서 모니터를 하려고 했는데 조회 수가 생각보다 많이 나와서 놀랐습니다.

당진 5일장은 27만 뷰가 나왔어요. 홍성은 16만 뷰, 유구는 2만8천 뷰가 나왔는데 이렇게 유튜브를 통해서 사람들에게 많은 관심을 받는 요인을 저는 잘 모르겠더라고요. 혹시 방송사에서 분석한 건 있는지 말씀을 해 주시면 좋겠고요.

이번 달에는 <시시각각>을 중심으로 살펴봤습니다. “3.8 민주외거 63주년 지역 민주화 운동을 말하다” 라는 프로그램으로 진행이 되었습니다. 3.8 민주외거가 지역의 중요한 민주화 운동으로서 갖고 있는 의미 그리고 함께 갖고 있는 한계들이 닮았다라고 생각이 들었고요. 왜냐하면 3.8 외거 한번만으로 분량을 채울 수 있을까하고 걱정을 했는데 5.18 민주화 운동과 87 민주항쟁까지 확대하면서 분량도 확보를 했지만 민주화 운동이라는 것의 계승 측면에서 3.8에만 국한되지 않았다는 측면에서 잘 기획됐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개인적으로는 지역에서 20년 가까이 민주화운동과 통일운동에 함께 하는 과정에서 저는 3.8세대를 만난 적은 없거든요. 그 이야기는 1960년대에 3.8외거 4.19세대들이 어찌면 기록권을 해왔기 때문에 현장에서 민주화 운동에 관여를 안 하고 있는 측면도 있고 또 연세들이 있기 때문일 수도 있겠지만 그런 분들하고 소통하지 못해서 그분들이 지금의 민주화 운동에 대해서 어떠한 생각을 하고 있을지 궁금했었는데 어쨌든 방송에서 그분들의 답변을 들을 수 있어서 저는 개인적으로 괜찮았다는 생각이 들었고요.

다만 87년 6월 항쟁을 대변하는 세대의 인물로서 전직 구청장 정치인이 등장한 것은 아쉬웠습니다. 다른 인물들도 충분히 많았을 텐데 왜 이 인물이 선정이 됐을까 라고 생각해 본다면 아마 전에 민주시민교육네트워크라는 단체에서 87년 6월 항쟁과 관련된 간담회가 있었습니다. 거기에 심규상 기자, 박정현 청장, 장수찬 교수, 우희창 박사 등이 했던 프로그램을 참고하다 보니 그러지 않았을까 라는 생각이 들긴 합니다.

다른 대안이 없다면 충분히 가능하겠지만 정치인이 87년 6월 항쟁을 대변하는 대표 주자로서 발언한다는 것은 마치 민주화 운동 인사들이 정치화 됐다는 오해의 소지와 그렇지 않은 수많은 사람들의 이후 활동에 대한 오해를 받는 측면이 있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두 번째 3월 19일자 대전과학자가 본 '챗 GPT' 열풍 지역 활용 방안이 있었습니다. 저도 '챗 GPT'에 대해서 관심을 갖고 있었지만 저는 느린 편이기는 하거든요. 새로운 기술을 하게 되면 적극적으로 하려는 편이긴 한데 저도 이걸 써볼까 말까 고민하는 사람이었는데 지역에서 잘 다뤄져서 시기적절한 주제이지 않았나 생각합니다.

특히 올해 대덕특구 50주년을 맞는 시기적 의미에서 대덕 연구단지에 있는 연구자들을 방송국으로 불러들여 세계적 이슈를 지역의 특성에 맞게 논의한 측면에서 시의 적절하기도 하고 유익했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앞으로도 이런 지역전문가들을 활용하는 측면에서 대덕특구 연구단지의 인력풀을 적극적으로 활용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었고요.

다만 조금 아쉬운 거는 챗 GPT 열풍에 전 세계 사용자가 1억 명인데 한국 사용자가 얼마나 되는지 진행자가 질문을 했었거든요. 누구를 지칭하지는 않았지만 특정인에게 질문을 했던 걸로 보입니다. 하지만 4명의 패널 중에서 아무도 답변을 하지 않았고 뭔가 부자연스러운 부분들이 보였습니다. 만약에 생방송이라면 그럴 수도 있겠지만 녹화 방송에서는 그런 부분들은 깔끔하게 전개하는 것이 낫지 않았을까 생각이 듭니다.

<시시각각>이라는 프로그램이 생방송토론은 아니지만 생방송처럼 룩테이크로 끝내버리는 듯한 느낌들을 이번 말고도 전에도 봤었거든요. 그럴 거면 생방송으로 가든지 아니면 녹화 방송이라고 한다면 또 녹화 방송이 갖고 있는 장점도 있잖아요. 여유 있게 하면서 긴 부분도 자를 수 있고.. 예를 들면 3.8 주역들이 발언을 18분 정도 초반에 해버렸어요. 지루하게 느껴지는 부분

도 있었던 거죠. 생방송이었으면 진행자가 개입을 하든 아니면 어쩔 수 없다 라고 인식할 텐데 녹화 방송인데 이런 모습들이 보였던 것들이 아쉬운 부분들이 있었습니다. 고려를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 최병욱 위원장

시시각각에 대해서 깊게 얘기를 해 주신 것 같습니다. 다음에 류용환 위원님 부탁드립니다.

#### 류용환 위원

오늘 공주대학교 세미나에 갔다가 끝을 못 보고 왔어요. 오늘 세미나 내용은 동학사에 가면 3사라고 있어요. 숙모전, 삼은각, 동계사가 있죠. 홍살문이 있는 데는 우리나라에서 동학사가 유일하거든요. 그 홍살문은 유교 유적이잖아요. 근데 그 홍살문이 있는 이유가 동학 3사 유교 추모 사당이 있기 때문이죠.

우리나라에서 정식 사당으로서 이렇게 제일 많은 분들을 배향하고 있는 사당은 동학사에 있는 3사가 아닌가 생각이 되는데 이 3사 가운데 숙모전은 단종 이후에 조선시대 92명의 충신들을 모셔놓은 대규모의 추모 시설이죠. 그리고 삼은각은 고려 말에 삼은이라고 하는 길재, 정몽주, 이색을 모셨고 그 다음 동계사가 신라 충신 박제상을 모신 사당인데 그 동계사를 만든 분이 저희 시조예요.

오늘 회의의 취지는 삼은각과 숙모전은 문화재로 지정됐는데 정작 시초라고 할 수 있는 동계사가 문화재 지정이 안 돼서 저희하고 박제상 후손들이 오늘 회의를 개최를 했습니다. 오늘 거기서 기초 발표를 듣고 토론을 하고 왔어야 되는데 회의에 빠질 수가 없어서 이 자리에 왔습니다. 방송에서도 우리나라에서 유래를 찾아볼 수 없는 독특한 시설인 만큼 관심을 갖고 나중에 한번 취재를 해봐 주셨으면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시청자위원회 회의를 안내하면서 프로그램 화두를 던져주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저도 <장날>을 봤습니다. 시장은 TV하고 라디오는 물론 모든 매스컴에서 가장 즐겨 다루는 소재인 것 같습니다. 대부분은 리포터들이 특산품을 소개하거나 아이돌 등 연예인 체험으로 예능 프로그램 형식으로 진행되는 것 같아요. 따라서 그 내용들이 대동소이하고 솔직히 제 입장에서 는 진부한 형식들이 많더라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날것 이미지를 그대로 방송으로 내보내고 시장이 백인백색 또는 천인천색이라 사람들의 다양한 삶을 간접적으로 볼 수 있는 역동적인 삶의 현장이기 때문에 줄곧 방송 소재로 여전히 활용이 된다고 봅니다. 하지만 그만그만한 시장프로그램이 생명력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시장에 대한 대전MBC만의 독특한 개성있는 접근법이 필요하겠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개별 시장마다 생성된 역사... 예를 들면 유성시장이 이번에 철거되고 있는데 유성구에서 소개하는 안내문에도 역사가 90년 정도 됐다고 나와요. 그런데 제가 조사를 해보

니까 120년 역사의 문헌 기록이 있어요.

역사를 공부하는 사람이라 그런지 시장의 역사라든지 또 시장이 그 자리에 자리하게 되는 입지 이런 것도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시장의 입지와 특성들을 보면 시장의 이면을 함께 볼 수 있고... 아울러서 전통시장 위주로 방송되고 있는데 시장도 다양하잖아요. 이걸 말이 되는데 모르겠습니다만 인력 시장이라든지 중고시장이라든지 화훼시장, 골동품시장, 심지어 경매시장, 새벽시장, 도둑시장 이렇게 불리는 다양한 시장들이 있는데 이런 것들도 한번 인간의 경제적인 활동이 이루어지는 다양한 형태의 시장들을 곁들여서 보여주는 건 어떠할지 하는 그런 생각도 해봅니다.

아울러서 시장이 지금 많이 소멸되고 있는데 소멸되어가는 시장의 모습 그리고 생명을 다해서 없어져가는 시장, 이런 것도 소개를 해 주시면 조금은 차별화하는 데 보탬이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해봅니다. <장날>을 3회까지 했는데 1~2회까지는 무미건조 하더라고요. 그런데 3회째가 되니까 축적돼서 조금은 다양하고 안정되게 진행이 됐다고 보고 있습니다.

다문화 가정의 좌충우돌 시장 경험이라든지 또는 시작부터 파장까지의 장꾼의 일상이라든지 하는 접근 방법도 괜찮지 않나 생각도 해봅니다. 아무튼 <장날>이라는 프로그램이 다른 유사한 프로그램보다도 경쟁력 있고 장수할 수 있는 프로그램으로 발전하기를 기대합니다.

대전MBC 소년소녀합창단 운영을 하시는데 대전MBC에서 첫 창단인지 앞으로 지속적으로 운영하는 것인지 비영리인지 궁금합니다. 제가 박물관 현직에 있을 때 지역 소재 기업의 메세나 운동 참여 유도를 위해서 대전음악회 300회 공연을 해보면서 저도 어린이합창단을 창단을 했었어요. 그래서 독일로 연주회도 떠나고 어린이합창단에 대한 학부모들의 기대와 반응들이 굉장히 좋습니다. 대전에 5개 정도의 어린이합창단이 있는데 그 가운데 가장 튼튼하고 공신력 있는 어린이합창단을 대전MBC가 운영할 것 같은데 이러한 어린이합창단들이 서로 상생할 수 있는 기회도 마련해 주셨으면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지금 대전에는 동 합창단 구립 합창단 등 많은 합창단이 시나 구에서 지원을 받아서 운영을 합니다. 그런데 이러한 합창단에서 활동할 수 있는 연령이 대부분 50에서 55세를 상한선으로 하고 있어요. 55세 이후의 분들이 굉장한 아쉬움을 많이 표현하더라고요. 그분들은 사회적으로 여유 있는 분들이고 또 숙성된 예능적인 기술들이 있는데 연령에 밀려서 본인들도 활동할 수 있는 기회를 만들어 달라는 요구를 굉장히 많이 받았습니다.

아파트에서 하는 여러 가지 프로그램이나 합창 단원 모임을 보고 입주민들이 거기서 좌절을 하더라고요. 지금 연령도 많이 늘어나고 있는데 여유가 된다면 대전MBC가 실버합창단 쪽에도 관심을 갖고 창단을 해 주시면 더 좋고 아니면 프로그램 상으로도 실버 연령들에 대한 예술 활동 지원을 해보시는 것은 어떠신가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이상입니다.

## 최병욱 위원장

소년소녀합창단에서 실버합창단까지 얘기하셨고 전체적으로는 확실히 <장날>에 대한 얘기가 많이 나온 것 같고요. 저도 비슷한 생각들이 거기에 있었습니다. 매회 어떻게 차별화할 건가... 어떻게 다르게 가져갈 건가 궁금한 상황입니다. 한번 관심 가져주시면 좋겠고요.

<시시각각>을 보는데 챗 GPT를 얘기하면서 저도 이공계 사람이라 뭘 소리인지 알면서 보기는 하는데요. 거의 자막이 없어요. 요즘 예능이나 자막 흥수 속에서 가끔 숨이 막힐 때도 있지만 다른 토론에서는 그렇게 느끼지 않았는데 기술적인 용어들도 나오고 그래서인지 몰라도 약간의 사후 노력이 들어가는 겁니다만 편집 얘기도 나왔는데 자막으로 보충 설명이 됐으면 일반인들 입장에서는 이해하는 데 훨씬 도움이 되지 않았을까... 정치 토론 이런 거 얘기할 때 그런 느낌은 안 받았었는데 과학기술 쪽이다 보니까 일반인들이 그렇게 느끼지 않을까 해서 한번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은 대전MBC쪽에서 설명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 이상욱 편성국장

먼저 <장날>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말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다큐멘터리 <장날>이라는 프로그램을 근본적으로 접근한 부분은 앞으로 10년 20년 뒤 사라질지도 모를 것들에 대한 기록입니다. 두 번째는 대전MBC라는 채널이 레거시 미디어긴 하지만 타깃 오디언스를 40대 중반 이상으로 상정을 하고 그 분들이 보고 싶어 하는 것 그리고 원하는 부분에 대해서 접근한 부분이 있습니다.

이번에 <장날>프로그램을 하면서 아직 3회 정도 방송이 나왔지만 일정부분 성과를 거두었다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3회 차까지 전체 충남지역 시청률로만 따지면 동시간대 2위였습니다. KBS 9시 뉴스가 항상 1등이니까 그런 정도의 성과가 있었고, 유튜브 조회수도 28만 회, 16만 회, 3회 차가 올라간 지가 얼마 안됐지만 성과를 거두고 있고 말씀하신 것처럼 여러 가지 보완점에 대해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내레이션을 지역 방송에서 굳이 서울 연예인을 내레이터로 써야 되느냐 라고 하셨는데 이 부분은 항상 고민인 게 지역에서 이런 훈련된 인재를 찾기가 어렵습니다. 지역에서 연극하시는 분들이나 나를 성우하시는 분들을 매칭을 해봤는데 제작진이 어쩔 수 없이 이렇게 가야지 프로그램을 더 맛깔나게 살릴 수 있겠다 라고 판단한 부분이 있으니까 양해 부탁드립니다.

리포터나 출연자 이용하는 부분은 저희도 많이 고민을 했는데 14개 지역사 공동 제작인 <테마기행 길>프로그램에 최주봉 선생님이 프리젠토로 나오거든요. 그 것과 차별성을 갖기 위한 측면도 있기도 하고, 그냥 10분짜리에서 리포터가 나와서 하는 게 아니라 긴 호흡을 가지고 가야 되기 때문에 웬만한 출연자가 나와서 그걸 소화하기는 어렵겠다는 판단을 했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프리젠토 없이 그냥 가는 걸로 결정한 부분이 있습니다. 양해를 부탁드립니다.

<다큐M> 시제 문제 말씀하셨는데 가능하면 그 주에 생산되거나 전 주 정도 생산된 콘텐츠로 구성을 하는데 <오늘M 특별판>이나 <전국이 보인다> 같은 경우는 시차가 조금 있을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뒤로 순연되는 문제가 있어서 그런데 이 부분은 제작진한테도 전달해서 최대한 시제와 무관하게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많은 분들이 <장날>이 계속 이어되면서 차별화 문제를 말씀해 주셨는데요. 처음에 말씀드린 것처럼 사라질지도 모르는 것들에 대한 기록이라는 근본적인 생각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장날에 모인 분들의 하나하나 특정한 부분들... 어르신들이나 모인 사람들의 이야기에 한 번 들어갔다 다시 장날로 나오는 이런 구성을 저희가 추구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사람을 중심에 놓고 차별화하는 방법 그리고 지역 특성이 반영된 차별화를 제작진이 계속 고민 중에 있습니다. 이번 주 목요일에 유성 장날이 방송이 되거든요. 도심지에 있는 장날은 어떤 모습일까 차별화를 위해서 제작진이 노력했으니까 잘 봐주시기 부탁드립니다.

유튜브 조회 수 관련해서 50분짜리 콘텐츠가 이렇게 조회 수가 많이 나오기 힘든데 저희도 분석이라는 게 비슷한 수준이긴 할 것 같긴 한데 한 두 가지 정도 생각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백종원씨가 예산 시장에 가게를 만들면서 장날이라는 키워드가 최근에 화제가 되고 있는 것 같고, 두 번째는 타깃 오디언스를 40대 중반 이상으로 잡았고 그 분들도 유튜브를 통해서 많은 정보나 혹은 주말에 어디를 가볼까 혹은 레트로를 어떻게 추구할까 하는 검색어에 많이 노출이 되는 것 같습니다.

장날이나 오일장은 그래서 유입되는 조회수가 많지 않나 라는 정도로 분석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유튜브 채널도 젊은 세대들 뿐만 아니라 중년 세대들에게도 지상파 콘텐츠를 가지고 조회수 경쟁을 할 수 있겠구나 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맞게 솜이나 롱폼에 지상파 콘텐츠를 재가공해서 접근하는 방법도 고민하고 있습니다.

<시시각각>에서 3.8 민주주의 관련해서 임재근 의원님께서 말씀해 주신 정치하는 분이 굳이 패널로 나와서 87 민주화 6월 항쟁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어야 되느냐 하고 말씀하셨는데, 말씀하신 것처럼 박정현 전 구청장이 정리 작업들을 많이 담당했기 때문에 섭외가 된 걸로 알고 있고요. 하지만 정치인 출연에 대한 부분들은 앞으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챗 GPT 관련해서는 임재근 위원님과 최병욱 위원장님 말씀하셨는데 <시시각각>같은 경우는 거의 실시간 개념으로 녹화를 해서 사실 MC 컷 정도만 드러내는 정도의 편집을 하고 있는데 누가 봐도 튀는 편집에 대해서는 주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셨던 전문 용어에 대한 자막 설명도 보완해서 앞으로는 불편함 없게 시청하실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최기용 보도국장

한국타이어 대형 화재가 최근 우리 지역에서는 가장 큰 이슈이기도 하고 당시에 타이어 대형 공장 화재의 위험성도 있지만 실제 화재 취재 당시에 불길이 가장 크게 번졌습니다. 옆에 지나가는 금강 출로와 경부고속도로 운행까지 안 될 정도로 대단히 위험한 상황이었습니다. 그래서 그 시점에서는 저희가 특보 체제를 시작했고 재난 보도에 준하는 대응을 했습니다. 항상 이런 대형 사건들에서 느끼는 부분이지만 이런 대형사고시에는 좀 더 냉정하고 차분하게 현재 상황들을 정확하게 알려드리는 게 방송의 중요한 역할이 아닌가 생각을 해봤습니다.

물론 화재는 진화됐습니다만 이후에 벌어지는 특히 소방폐수의 금강 유입에 의한 환경오염 문제라든지 미세먼지들이 아직도 현장에 남아 있어 아이들의 건강에도 위험이 될 수 있는 부분들에 대한 문제 제기, 그리고 유해 성분에 대한 분석들을 하고 있습니다만 결과가 나오면 저희가 지속적으로 보도를 할 생각이구요... 특히 당시에 휘발성 유기화합물이라고 하죠. 이런 것들이 비상하면서 흡입됐을 가능성도 있기 때문에 중장기적인 건강 모니터링이 필요한 시점입니다. 대형 재난이라든지 사고 뒤에는 후속적으로 생기는 여러 가지 문제들이 있기 때문에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하고 놓친 부분이 없는지, 특히 주민 건강에 대한 부분까지도 대응을 해서 보도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가뭄 캠페인이 말씀하셨는데 저희 지역도 지금 위기 상황입니다. 그래서 캠페인과 별개로 보도에서도 되풀이되는 가뭄에 대해서 막을 수 있는 어떤 근본적 대책이 없는지 뉴스를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지역에 신흥종교가 많이 흥행하는데 최근 넷플릭스에서 <나는 신이다>가 화재가 되면서 관심이 촉발된 지점이 있습니다. 특히 JMS 같은 경우에는 지난주 강제 수사 절차에 들어가기도 했지만 이런 부분을 보도할 때 말씀해 주셨습니다만 정확한 용어 그리고 피의 사실에 대한 보도라든지 주의해서 하겠고, 그리고 피해자들에 대한 2차 가해가 되지 않도록 고려해서 신중히 대응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본적인 시스템입니다만 이중 데스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취재데스크에서 집어낸 부분들을 보도국장인 제가 마지막 편집 데스크에서 이중 출고를 해서 조금이라도 문제가 될 수 있는 소지들을 미연에 방지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주의해서 대응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오늘 대전이 벚꽃이 만개한 상황인데 작년에도 저희가 생동감 넘치는 뉴스들을 진행하기 위해서 계룡군문화엑스포, 보령머드해양박람회, 공주 무령왕릉 발굴 50주년 등 이벤트들이 있을 때는 나가서 이동보도국을 진행했습니다. 모니터에서 피드백이 좋았고 시청자들에게 생생하게 현장에서 다가선다는 그런 의미가 있습니다. 올해 우선 예정돼 있는 게 4월 20일 과학의 날에 이동보도국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생생한 지역 밀착형 뉴스들을 현장에서 전한다는 기획들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정동 위원님 말씀해주신 현대아울렛 문제... 당시에 드러나지 않았던 문제점들부터 그 이후에 달라지는 정책들에 대한 이야기를 계속하고 있는데 지하 휴게 시설이 존재하다 보니까 건강상 문제라든지 대피 문제라든지 그런 안전성에 대한 문제들이 이슈로 촉발된 지점들이 있습니다. 그 부분들이 실제 제도로 정착되고 지켜지고 있는지 꾸준히 감시하고 모니터링 하도록 하겠습니다.

공주보 보도 같은 경우에도 저희가 솔루션저널리즘 차원에서 문제 제기에 그치지 않고 그 문제들이 어떻게 해결되는지 까지도 계속 모니터링해서 뉴스를 유지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국가 산단으로 지정된 것은 지역 발전을 위해서 좋은 일입니다만, 말씀해 주신 것처럼 대전시가 과도한 재정을 투입해서 추진하다 보면 지방 시장경제에 악영향을 끼칠 수 있는 우려가 있습니다. 결국에는 시민들의 세금이 들어가는 부분이기 때문에 선정을 위해서 무리수를 둔 부분이 있지 않느냐는 그런 관측도 있기는 합니다. 여러가지 지역개발 전략들이 있을 때 실제로는 무조건 쌍수를 들고 환영할 만한 부분은 아니고 정책 입안과 집행 과정에서 미비한 점과 잘못된 다른 효과들을 거둘 수 있는 지점도 있기 때문에 감시와 견제의 역할들을 충실히 해 나가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서주석 전략기획실장

소년소녀합창단은 말씀하신 대로 전국 방송사 가운데 특히 MBC내에서 어린이 합창단을 운영하는 곳은 지금 거의 없습니다. 안동MBC와 울산MBC가 외부에 맡겨서 이름만 명맥을 유지하고 있는데 이게 공익사업이지만 운영이 어려운 사업입니다. 수익은 기대할 수 없고 어린이와 학부모 사이에서 여러가지 신경을 써야 할 부분이 많기 때문에 운영상의 어려움도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소년소녀합창단을 창단하게 된 것은 공적 채무, 소위 ESG경영 얘기를 하고 있는데 MBC가 공영을 지향하면서 지역사회를 위해서 어린이들에게 꿈을 주는 뭔가 해야겠다는 그런 목표에서 시작이 됐습니다. 그래서 이미 지난달부터 연습이 시작됐고요. 매주 한 번씩 금요일마다 저희 공개홀에서 하고, 4월 21일에 공식적인 창단식을 할 계획입니다.

앞으로 지역 축제에도 출연시키고 또 소외계층을 찾아가서 정기 연주 공연도 할 것이고요. 1년에 한 번 정도 투어 개념이 아니고 의미 있는 현장을 찾아서 어려운 난민들을 찾아가는 그런 해외 공연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저희 사장님께서도 발제해 주셨지만 MBC 본사에서 전국 MBC어린이 창작동요제가 있었습니다. 노을이라는 주옥같은 명곡도 배출을 했는데요. 지금은 그게 사실상 사업으로서 장점이 없기 때문에 오래 전에 명맥이 끊겼는데요. 대전MBC가 주도해서 MBC 전국창작동요제를 부활시킬까 하는 계획도 갖고 있고요.

류용환 위원님 좋은 말씀해 주셨습니다. 소위 실버, 청춘합창단이라고 명명하면 더 좋겠죠. 노

인들을 위한 60대 이후를 위한 그런 합창단도 한번 저희가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합창단을 운영하면서 여러 가지 좋은 역할을 저희가 할 것이라고 기대를 하고 많이 응원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은표 간사

추가로 더 질문하시거나 궁금하신 거 있으면 말씀해 주십시오.

임재근 위원

<장날> 프로그램은 앞으로 몇 회가 정해져 있는 건가요?

이상욱 편성국장

일단 12편을 계획하고 있고요. 그 다음은 다시 한 번 정리를 해서 고민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은표 간사

다음은 최병욱 위원장님께서 인사 말씀 해주시고, 이어서 김환균 사장님 인사말씀 들겠습니다.

최병욱 위원장

오늘도 기획된 내용이나 지역에 관련된 보도들에 대해 많이 이야기를 나눈 것 같고 MBC도 전체적으로 인지하고 또 그 적극성을 갖고 계속 뛰려고 하시는 것 같아서 보기가 좋습니다. 저희가 다음 달까지 시청자위원인데 남은 한 달 더 열심히 시청해서 더 좋은 의견을 드릴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환균 사장

최근 방송사에서 콘텐츠로서 화제를 모았던 게 <피지컬 100>과 <나는 신이다>인데 넷플릭스에서 글로벌 1위를 하기도 하고 또 굉장히 큰 파장을 불러 일으키기도 했습니다. 이게 예능이나 드라마가 아니라는 점에서 굉장히 큰 의미가 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드라마 말고도 글로벌 1위를 할 수 있구나 하는 것을 일깨워주는 게 그 두 작품입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 이 두 개의 콘텐츠가 보여주는 게 사실은 굉장히 진부하다는 건데요. 피지컬100은 승부를 다루고 있는데 누가 1등할 것인가 이걸 다루고 있는 거고, <나는 신이다>는 사이비 종교라는 단어를 쓰지 말라고 그러더라고요 가치 평가가 들어가 있기 때문에 신종교들의 경우 어떤 사회적 문제를 야기 하는가... 우리 사회는 매번 그런 신종교들 때문에 한번 커다란 파동을 주고 실상을 보여주는데 사실은 이미 보도된 것들입니다.

그런데 그것을 오랜 시간에 걸쳐서 충분히 더 증언을 듣고 영상들을 보여줌으로써 충격적으로 다가가는데 이런 말씀 드리면 어떨지 모르지만 저는 하늘아래 새로운 것은 없다고 생각합니다. 콘텐츠를 어떻게 잘 해석해서 재생산하는가 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런 점

에서 <장날>같은 경우에는 편성에서 새롭게 시도하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이게 콘텐츠로 볼때 새로운 거냐면 전혀 새롭게 않습니다. 하지만 대전의 이슈로서는 굉장히 중요한 새로운 시도입니다. 사라져가는 것들 그리고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시대의 삶 이것을 기록하는 것이면서 그 다음에 대전MBC가 고려하고 생각해야 되는 시청자에 대한 탐구를 시작했다 라고 이해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다행히 시청률이라든가 영상 조회수에서 가능성을 보여준 것 같아요. 그래서 좀 더 다양하고 과감하게 지역 시청자들을 위해서 우리가 뭘 해야 할 것인가를 새롭게 정의해 나갈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합니다.

소년소녀합창단도 우리 지역민들에게 뭘 해야 될 것인가 하는 것을 고민을 많이 하다가 시작을 한 건데요. 저는 코로나 이후에 계속 마스크를 쓰던 아이들이 마스크를 벗으라고 하면 정말 좋아할 것 같은데 벗기를 싫어한답니다. 이게 뭐지 하는 거를 어른들한테 던져준 거죠. 이 아이들에게 뭘 해줘야 될 것인가를 고민해야 될 시점이다. 그래서 역시 진부합니다마는 아이들에게 목소리를 서로 맞춰서 노래를 하고 웃는 모습으로 다른 사람한테 기쁨을 주는 연습들을 해야 되지 않느냐 하는 생각을 했습니다.

아까 아이디어를 주셨는데 아이들만 동요를 부르는 게 아니고 3대가 함께 부르는 동요대회... 할아버지, 엄마 아빠 그리고 나 3대가 부르면 그것도 좋은 아이디어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제 디지털 세상이 되면서 어떻게 보면 이렇게 가도 좋은가 하는 우려들을 다들 갖고 있지 않아요. 뭘가 그런 문제들을 어떻게든 개선하려는 노력을 해야 되지 않을까... 저는 어쨌든 음악만이 아니라 예술이라든가 이런 게 도움을 줄 수 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미술은 금강미술대전을 아트앤미디어대전으로 이름을 바꿨습니다만 그걸 하고 있고 그래서 음악 분야에도 해보면 어떨까 하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실버합창단은 정말 좋은 아이디어라고 생각이 되고요. 꼭 해봤으면 좋겠어요.

제가 대전에 부임하면서 맨 처음 해봤으면 하는 게 실버 올림픽이었거든요. 이게 실제로 일본에서는 하고 있어요. 올림픽이라고는 하지 않지만 60세 이상 실버세대들이 체육대회를 하는 거예요. 근데 굉장히 활발하게 잘 돼 있고 일본에서 활동하던 친구가 우선 한중일 3국을 해보자고 했는데 코로나가 터지는 바람에 모든 게 중단됐습니다. 시간이 걸리더라도 그런 것을 해보면 좋겠다. 어쨌든 노년층들이 많이 늘어나고 있는데 그 분들이 활기찬 노년을 보낼 수 있는 프로그램이 필요하지 않을까... 아직 구상 단계입니다만 조금 논의가 필요합니다. 이런 것들이 대전MBC가 주 시청자 층을 위해 해야 하는 고민이라고 이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오늘도 좋은 말씀 정말 감사드립니다.

이은표 간사

수고 많으셨습니다. 3월 시청자위원회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